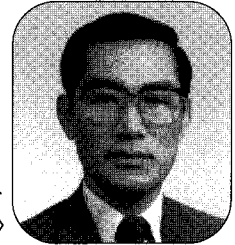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특허기술 정보 활용 현황

이 글은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APEC 지적재산권 업무회의에서 한국발표자로 나선 홍영표 변리사의 국내현황개요로 그 전문을 게재하는 것임 <편집자 주>



홍영표 변리사
<KIM & CHANG 특허법률사무소>

21세기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우리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기술발전과 정보의 축적을 목격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치는 정보의 바다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늘날 민간과 정부의 구분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 중요한 수단 이 되어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정보의 활용 가운데서도 특허 정보,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특허 정보 활용 현황 및 미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시피 특허 정보는 기술 정보인 동시에 배타권 정보라는 두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정보로서의 특허 정보는 다른 기술 정보와 비교할 때 그 정형성(formality)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허 정보는 출원인, 발명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claim 등의 공통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의 기재 형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정형화 되어있고 엄격한 편입니다. 또한 특허 정보는 발명을 public에게 disclose한다는 특허제도의 목적을 위해서 법률상 정부기관이 직접 공개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형성과 공개성으로 인해서, 특허 정보는 가장 유용한 선행 기술 조사 대상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 정보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서는 먼저 KINITI라 약칭되는 "산업기술정보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Y AND TECHNOLOGY INFORMATION CENTER)"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KINITI는 국내 및 해외특허 기술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INITI의 서비스는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며 전문가에 의한 검색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특허기술정보센터(KOREA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CENTER)"입니다. 이 기관은 1994년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1996년부터 KIPRIS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IPRIS는 대한민국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1947년 이후의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 데이터 및 해외 산업재산권 정보 데이터를 복제, 가공하여 구축한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한 특허기술 정보 전문 서비스입니다. KIPRIS는 최신의 분산처리형 컴퓨터 시스템과 다양한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하여 산업계, 변리사 사무소, 연구소, 학계, 발명가 등 산업재산권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IPRIS는 특허 text data뿐만 아니라 image data도 제공하여 예컨대 도면을 포함한 한국 특허 공보의 사본을 개인용 컴퓨터로 전송받아 출력해 낼 수도 있고 도형 상표의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KIPRIS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역을 가지고 계신 자료에 표1로서 첨부했습니다

다.

그밖에도 민간부문에서는 대우전자주식회사가 Internet으로도 제공하는 PATROM이라는 이름의 대한민국 산업재산권 서비스나, PC통신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몇가지 산업재산권 검색 서비스, 그 밖에 대한민국 특허 공보를 수록한 CD-ROM 등이 있습니다.

특허정보를 그 두 번째 특성 즉, 배타권 정보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의 권리의 존속여부, 심사·심판·소송 등의 기록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한 정보를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만, 지금은 KIPRIS가 그러한 정보를 특허청으로부터 제공받아 on-line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IPRIS의 서비스는 1998년에는 Internet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게 준비중입니다.

이외에도 특허 관련 정보로서 판례 정보가 있습니다. 판례 정보는 KOLIS라는 이름의 on-line서비스 천리안이라는 PC통신에서 제공하는 판례 정보, 킹스필드라는 이름의 CD-ROM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1999년부터 전자출원 즉, on-line 출원을 시행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중간 과정으로서 특허 출원시에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출원 서류의 부분(duplicate copy)을 floppy-diskette에 수록하여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원 데이터를 이와같이 디지털 정보화함으로써 정보의 수집, 가공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한 특허 정보의 활용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특허기술 정보 제공 Service 현황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소개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자세하고 충분한 자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특허청이나 특허기술 정보센터를 통하여 입수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관계전문가 여러분께서 다 같이 연구 검토하고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하

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세기 말 이전만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자료(특히 기술자료)의 부족뿐만 아니라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공개를 하지 않은 것도 포함) 산업에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너무나 많은 양의 정보와 신속히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어떻게 확보하고 적절히 가공하여 해당 분야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특허기술정보란 백과사전식의 단순한 수집과 나열만으로는 그 활용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허기술의 특성상 그 기술자료의 생성시기(발명일, 출원일 등), 선행기술에 포함/독립된 범위, 내용, 산업에의 유용성 등등 그 기술자체뿐만 아니라 타 기술과의 비교, 평가 등에 의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용이한 제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선행되어야 할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 자료교환을 위한 표준화(자료생산, 검색, 확보)
- 신속한 전달, 제공(종이대신 Diskette, CD, DVD 등 신매체, ON-line 등 통신수단등)
- 통일된 판단기준(기술적, 법적해석)
- 공동활용을 위한 문제해결에 동참(정부 관계기관 및 단체에 요구, 건의, 협의) 등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기관과 관계기관, 관계기관과 정부, 정부와 정부간의 공동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필요로 할 것입니다.

물론 이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해결되었으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풀어야할 과제이므로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제한된 시간내에 촉박하게 제시해야 할 두서 없는 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트9711**